

수산사업소에서 새겨주신 송고한 뜻

2016년 11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전례없는 물고기대풍을 마련한 1월8일수산사업소를 찾으시였을 때였다.

오랜 시간에 걸쳐 물고기랭동블록들이 가득 쌓여있는 랭동저장고들을 하나하나 돌아보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현대적으로 꾸려진 사업소구내와 드넓은 부두하륙장에 가득 쌓여있는 물고기를 흐뭇하게 보시면서 좋다고, 정말 기분이 좋다고 하시며 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 가족들을 한품에 안아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였다.

떠나시기에 앞서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지배인을 자신의 곁으로 부르시였다.

1월8일수산사업소 지배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이르신 그이께서는 지배인은 지금의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앞으로 수산부문 지식을 깊이 체득하기 위한 학습도 하고 물고기잡이방법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여 자기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시였다.

현대과학기술을 소유하지 않고서는 끊임없이 전진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설수 없으며 당이 맡겨준 혁명초소에서 자기의 책무를 다할수 없다.

바로 그래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사업소의 일군들부터가 과학수산을 틀어쥐고 선진적인 어로방법을 받아들여 원아들과 양로원의 로인들에게 맛 좋고 신선한 물고기를 더 많이 보내주도록 세심히 일깨워주시는것이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현지도는 이곳 일군들의 가슴속에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다시금 깊이 새겨준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